

德川시대 일본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응전략에 관한 一考察

이 규 배*

— 목 차 —

머리말

I. 일본인의 국제정세 인식

II. 북방영토를 둘러싼 경합

III. 공격적 해양방어론의 형성

맺음말

머리말

최근 일본은 “신방위대강”을 통하여 ‘침략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기존의 수동적인 미일안보 체제의 목적을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자위대 규모는 줄이되 질적인 전력은 향상시킨다는 구상 아래, 육상자위대 정원을 현재 18만 명에서 14만 5천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동원예비군에 해당하는 예비자위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중조기경보기(AWACS), 이지스함 등 첨단무기의 증강, 경항공모함 보유계획, 일본판 CIA인 정보본부의 신설, 군사경찰기능을 갖춘 정보수집 위성의 발사 계획, 레인저 대원을 주축으로 하는 특수부대 창설, 나아가서는 어린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자위대 병력 증원문제 차원에서 우려하는 등,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칠 군사적 측면에서 가파른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는 이에 선행하는 국제정세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일례로, 정보수집 위성의 발사계획이나 정보본부의 신설은 1991년 걸프전쟁 당시에 겪었던 정보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으로서, 미국의 풍부한 정보량에 비해 자국의 빈곤한 정보에 대한 발본적인 대응책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의 일본은 일정한 정세인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통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 탐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동아시아연구소 특별연구원

본 논문은 과거 일본이 걸어왔던 국제정치상의 행태를 검토하고 그 실상을 밝힘으로써, 현대일본의 국제정치적 대응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접근하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전통을 중시하고 과거로부터 많은 유산을 계승하고 있는 일본은 이러한 정치적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지난 역사에서 시사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실상을 밝히는 경우에 먼저 주목을 요하는 것은 주로 서양제국이 서세동점하던 180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배계급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인의 정세인식은 서양제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둘러싼 모색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모색이 곧바로 일본의 독자적인 대응전략으로 구체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지배계급은 국제정세 인식에 대하여 광범한 의견일치를 이루었던 것은 아니었다. 상이한 견해를 지닌 지배계급간에는 그에 따른 정치적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때로는 정치적인 탄압도 수반되었다. 즉 일본은 서세동점하는 급박한 19세기를 맞이하여 정세인식을 둘러싼 의견일치에 도달할 때까지 심각한 내부대립을 경과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열강에 대한 대응문제에 즈음해서는 굴복과 후퇴없는 공격적인 국방론이 형성되었으며, 도전적인 세계제패론도 거론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정치에 대처하는 과거 일본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현대일본의 국제정치적 대응 패턴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I. 일본인의 국제정세 인식

고대부터 德川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이 저술한 직접적인 해외 견문기나 관찰 기록은 매우 드물다.¹⁾ 특히, 德川시대의 일본인에게는 쇄국체제라는 엄격한 제도 때문에 외국을 직접 견문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일본인들이 서양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나가사키(長崎)의 데지마(出島)에 체재하고 있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제한된 정보가 거의 모든 것이었다. 단 이 경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인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탐욕적이라 할만큼 왕성한 것이었으며, 그들은 제한된 통로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매개로 외부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니시카와 조켄(西川如見)이 저술한 『華夷通商考』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제국 및 서양제국의 위치, 풍토, 인구, 산물, 교통, 풍속 등을 기술할 수 있었던 것이나,²⁾ 아라이 하쿠

1) 특히 쇄국시대이기도 했던 德川시대에 쓰여진 대부분의 저서나 기록은 간접적인 정보에 의한 것이 많으며, 현지에서의 관찰 결과를 담은 기록으로는 해상 조난자들이 남긴 표류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간접적인 정보를 담은 저서로는 新井白石의 『西洋紀聞』(東京: 宮崎道生 校注, 東洋文庫, 1968)이나 西川如見의 『華夷通商考』(1695년에 2권 간행, 1708년에 정정증보판 5권 간행), 『日本經濟大典』, 제4권(東京: 瀧本誠一 編, 明治文獻, 1966) 등이 있고, 직접 관찰 결과를 담은 기록으로는 『北槎聞略-大黑屋光太夫ロシア漂流記-(1794년)』(東京: 桂川甫周 著, 龜井高孝 校訂, 岩波文庫, 1990)이나 『蕃談-漂流の記録1-(1849년)』(東京: 室賀信夫, 矢守一彦 編譯, 東洋文庫, 1965) 등과 같은 표류기록이 있다.

2) 西川如見, 앞의 『華夷通商考』, 277~384쪽.

세키(新井白石)가 『西洋紀聞』에서 서구사정과 세계지리 등에 대해 상술했으로써 훗날 쇄국체제하의 일본인에게 국제적 시야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는 서적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제한된 통로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매개로 했던 것이다.³⁾ 또한 일본인들은 외국에 표류했다가 귀환한 일본인들을 통해서도 러시아나 미국 등에 관한 중요한 해외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해외정보 획득은 조선과 중국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719년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도일했던 신유한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오사카가 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풍경은 실로 천하장관이다. 조선의 선비들이 남긴 문집 가운데서 『퇴계집』만큼 예인의 존경을 받는 것은 없다. …… 그들이 조선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있는 것은 일본이 부산 동래에 왜관을 설치한 이래 그 곳에 있는 조선 통역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모든 책들을 널리 구하며, ……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양국간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정보가 다수 기재되어 있는 김학봉의 『해사록』, 유성룡의 『징비록』, 강항의 『간양록』 등과 같은 대부분의 책이 지금 오사카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을 탐색해놓고 이를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⁴⁾

이처럼 일본인들은 쇄국체제하에서도 제한된 통로를 매개로 외부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빈곤한 해외체험을 정보수집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었다. 1800년대에 동양으로 세력을 뻗치던 서양제국에 대한 일본 지배계급의 이해도 이와 같은 간접 정보에 근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국제정세 인식은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곳이 있었다. 이들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양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서양 문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서양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다.

전자는 니시카와 조켄(西川如見)의 『華夷通商考』가 대변해 주듯이, 일본인들은 서양제국의 위치, 풍토, 인구, 산물, 교통, 풍속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⁵⁾ 또한 '蘭學'이라고 총칭되는 서양의 학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보여주듯이, 일본인들은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전파된 천문학·의학·지리·화학 등, 서양의 과학지식에 대해서도 다대한 호기심과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다.⁶⁾

한편, 외국에 대한 관심 가운데서 정치적인 면에서도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서양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서양 함선이 일본 근해에 출현하기 시작한 1700년대 말엽부터 서양 세력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된다. 이는 당시의 국제사회를 군사적 대립항쟁의 무대로 파악하는 시각과 불가분하게 연결이 되어있다. 일례로 1830년대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서양제국이 … 외국 영토를 탈취하고 국경을 넓히며 세력 확대를 꾀하는 것은 그들 민족성이 금수와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양 제국이 각각 독립해서 자기 세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중국에는 자신의 정

3) 新井白石, 앞의 『西洋紀聞』, 3~98쪽을 참조.

4) 申維翰, 『海游錄』, 姜在彦 역주(東京: 東洋文庫, 1974), 243~245쪽. 일본에 건너온 조선 및 중국서적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申維翰, 『日本見聞雜錄』, 앞의 『海游錄』, 305쪽을 참조.

5) 西川如見, 『華夷通商考』, 앞의 책, 277~384쪽을 참조.

6) ドナルド・キン, 『日本人の西洋發見』, 芳賀徹 역(東京: 中公文庫, 1982), 32~52쪽.

도도 모른 채 큰 뜻을 품게 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세계만국이 서양제국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서양제국이 만국 병탄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⁷⁾ 이러한 정세인식은 서양국가들의 일본 근해 출몰은 다름아닌 영토적 야욕 때문이라는 위기의식을 잉태하게 되며, 이 때문에 일부 일본인들은 군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지니게 된다.⁸⁾

이하에서는 외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 가운데서 주로 후자에 속하는 서양의 군사력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19세기를 전후한 무렵, 일본인들이 자국을 둘러싼 당시의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⁹⁾

1820년대에 전반적인 국제정세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일본인으로는 아이자와 야스시(會澤安)라는 무사가 있다. 그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구제국은 병립해서 戰國상태를 이루고 있지만 한결같이 동일한 신을 믿고있다. 이익이 있으면 서로 연합해서 욕망을 채우고, 이해가 틀리면 서로 국경 유지에 힘쓴다. …… 따라서 서방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동방은 무사하지만, 서방의 문제가 일단락되면 각자 사방으로 침략해 들어가기 때문에 동방도 안전할 수 없다.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부국경을 평정한 다음에는 곧바로 동진해서 시베리아를 경략하고 흑룡강 지방에 잠입해 왔지만, 청나라가 아직 강대하기 때문에 야심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방향을 바꿔 홋카이도를 공략하려 하고 있다. 이는 취하기 쉬운 것을 취한 뒤에, 공략하기 힘든 지역을 쟁탈하는데 덤벼들려고 하는 것이다.¹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자와 야스시는 유럽의 政情과 그것이 극동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미치는 관계를 정확하게 지적, 이를 戰國시대와 같다고 명명한다. 그는 또 「서양제국이 만리 바다를 넘어와서 침략하는 것은 송나라나 원나라 시대에는 없던 일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서양제국이 보유하고 있는) 큰 함선이나 대포는 옛날의 기마나 활하고 닮으면서도 조금도 닮지 않다」고 군사적인 면에서의 근본적인 시대변화에 주목을 요구한다.¹¹⁾

또한 그는 '전 세계의 칠웅'을 일본·청국·러시아·독일·무갈·페르시아·터키제국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병력의 강약·영토의 대소·세력범위·상호간의 세력관계 등,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병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터키이지만 이 나라가 단 한 번도 일본을 노린 적이 없는 것은 터키의 풍속이 오직 기마전을 주요 전술로 할 뿐, 항해술에는 숙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¹²⁾ 혹은 「페르시아는 예전에는 혼란하고 쇠약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도와서 부흥시켜 동맹을 맺고 터키를 격파했다. 페르시아와 러시아가 연합하게 되면 터키는 왼팔을 끊긴 꼴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7) 渡邊峯山, “外國事情書”, 佐藤昌介 편, 『渡邊峯山·高野長英』(東京: 中央公論社, 1984), 143쪽.

8) 일본인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홉스류의 약육강식 세계에서 자신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별히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일본인들의 위기의식을 잉태하게 됐다는 사뮤엘스 교수의 지적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R. 사뮤엘스, 『일본이 힘있는 나라가 된 이유—군사기술 대국의 내막—』, 정근모·이경서 공역(서울: 문화일보, 1995), 저자 서문을 참조.

9) 이미 1715년 이전에도 新井白石은 서양의 육군과 해군 및 병기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식민지획득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외국의 군사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新井白石, 앞의 『西洋紀聞』, 75~76쪽.

10) 會澤安, “新論”, 橋川文三 편, 『藤田東湖』(東京: 中央公論社, 1974), 338쪽.

11) 會澤安, 앞의 “新論”, 330~331쪽.

12) 會澤安, 앞의 “新論”, 332쪽.

대륙의 북방에 광대한 영토를 지닌 맹주인데, 지금 다시 남방으로 세력을 뻗쳐 대륙을 남북으로 종단해서 그 목질을 누름으로써 터키와 무갈제국의 동맹을 방해하고 있다. 청국의 위력도 또한 이 선에서 막혀 서쪽으로 뻗칠 수 없다」고 쓰고 있기도 하다.¹³⁾ '전 세계의 질용' 가운데 아이자와가 가장 주목을 하고, 특히 일본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국으로 손꼽은 나라는 러시아였다. 그는 러시아의 세계적 웅비 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이미 티벳과 위그르를 병합한 형세를 이루고 있고 자연스레 청국을 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청나라가 아직 강성하기 때문에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창끝을 돌려 일본을 노리고 있다」¹⁴⁾고 지적한다.

이처럼 이미 1820년대 시점에서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국제정치상의 역학구조 변화, 각국의 군사전략, 국가간의 동맹이나 세력균형 등,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요체를 파악하고 있는 일본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이자와의 저서가 당시의 무사계급들 사이에서 폭넓게 읽힌 저서 중의 한 권이었다는 점도 또한 주목을 요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저서를 통해서 적지 않은 일본의 지배계급들이 국제정치적인 세태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자와와 더불어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국제정세 인식은 德川幕府내에서 요직을 점하고 있던 하시모토 사나이(橋本左内)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최근의 해외정세를 보면, …… 맹주가 될 나라로는 먼저 영국이나 러시아 가운데서 그 어느 쪽이 될 것이다. 영국은 움직임이 신속하고 거칠며 탐욕적이고, 러시아는 같은 강국이라도 침착함이 있고 엄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로 인망이 모여들 것이라고 사료된다」.¹⁵⁾ 하시모토는 영국과 러시아에 대한 독자적인 정세판단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당시로서는 드물게 보는 중요한 외교론을 전개한다. 그는 먼저 일본이 처해있는 현실과 국제정세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독립자존이 불가능하다.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몽고나 만주 근방, 조선을 합병하고, 나아가 아메리카대륙 혹은 인도지역에 屬地를 거느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의 독립은 도저히 실현할 수 없으며, 현 상황하에서는 타국을 합병하거나 속지를 만드는 것도 곤란하다. 그 이유는 인도는 이미 서양열강의 속지가 되어 있고, 몽고 근방도 러시아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의 일본은 힘이 부족해서 강력한 서양 제국을 상대로 싸운다해도 도무지 승산이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어두는 편이 득책이 될 것이다」.¹⁶⁾

여기에 이르러 하시모토는 러일동맹론을 제기한다. 「영국과 러시아는 이해가 대립되는 양대 강국으로서 상호 갈등관계에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로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이는 …… 최근에 발발한 세계 각지의 분쟁경위 등을 보아도 명백하다.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앞으로 영국은 반드시 러시아를 공격하는 선봉역을 일본에 의뢰해 오던가 혹은 에조(蝦夷-지금의 홋카이도)의 하코다테(箱館)를 영국의 군사거점으로 빌려 달라고 부탁해 올

13) 會澤安, 앞의 “新論”, 332쪽.

14) 會澤安, 앞의 “新論”, 333쪽.

15) 1857년 11월 28일 村田氏壽에게 보낸 書簡, 橋本左内, 『啓發錄』, 伴五十嗣 역주(東京: 講談社, 1982), 66쪽.

16) 1857년 11월 28일 村田氏壽에게 보낸 書簡, 橋本左内, 앞의 『啓發錄』, 66쪽.

것이라 생각된다. 그 경우에 일본은 그 요구를 단연히 거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로서는 부디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으면 한다. 그것은 러시아가 신의있는 나라이고,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나라로서 입술과 이빨과 같이 이해관계가 밀접한 나라이기 때문이다.¹⁷⁾

이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하시모토는 일본의 전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일본을 둘러싼 열강의 갈등관계,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안 등을 일관성있게 모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하시모토는 단지 일본이 처해있는 현실과 열강간의 세력관계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서양이 강대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서 기술의 연구 개발, 병기를 비롯한 각종 기계의 발명 제조 능력, 산업의 발달, 각종 과학의 수준 등, 서양제국의 변모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서양제국의 변모를 증시하는 하시모토는 군사문제에 대한 일본내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쓸데없이 일본의 장점인 무용만 의지하고, 서양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발군의 병기와 용병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군사학이나 병법에 어두운 것」이라고 비판한다.¹⁹⁾ 따라서 그는 「러시아나 미국으로부터 우수한 인재를 고용해서 일본의 산업과 군사 분야에서 대개혁을 단행하고, 육군과 해군은 필사적으로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던 것이다. 하시모토의 안보론은 이론적인 동맹론만이 아니라, 국내개혁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상에서 살펴본 아이자와나 하시모토와 같은 정세 인식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군사문제에 대한 일본내의 안이한 태도가 하시모토에 의해 비판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일본에는 경직되고 시대착오적인 서양인식도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앞서 본 아이자와나 하시모토 이상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던 와타나베 카잔(渡邊崋山)²⁰⁾은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1830년대 당시의 일본을 다음과 같이 갈파하고 있다. 「옛날과 지금 사이에는 커다란 시세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고대의 지식을 가지고 현대를 논하는 자는 융통성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시세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²¹⁾ 와타나베가 '시세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한 것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일본의 국방체제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지금 일본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다이며, 이 바다 덕택에 외환이 없다고 안심하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믿고 의지가 됐던 바다도 항해술과 조선기술이 발달한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바가 못된다. …… 중국 고대에 오랑캐를 통제하고 방어하던 제도나 진·한시대의 낡은 국방론을 끌어내서 오늘의 외환대책을 논하는 자는 융통성이 없는 자이다.²²⁾

17) 1857년 11월 28일 村田氏壽에게 보낸 書簡, 橋本左内, 앞의 『啓發錄』, 67쪽.

18) "1857年 4月 藩校明道館 布令原案", 橋本左内, 앞의 『啓發錄』, 157쪽.

19) "1858年 2月 中旬 書簡", 橋本左内, 앞의 『啓發錄』, 118쪽.

20) 와타나베 카잔(渡邊崋山)은 「세계역사에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고대의 이적(夷狄-오랑캐)은 고대의 이적이고, 근대의 이적은 근대의 이적일 뿐, 같은 이적이라 하여도 양자는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옛날의 이적 관념에 얽매어 있어서는 오늘의 이적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서양의 실체를 적절하게 묘사한 인물이다. 渡邊崋山, 앞의 "外國事情書", 134쪽.

21) 渡邊崋山, "賦舌或問", 佐藤昌介 편, 앞의 『渡邊崋山·高野長英』, 96~97쪽.

22) 渡邊崋山, "慎機論", 佐藤昌介 편, 앞의 『渡邊崋山·高野長英』, 119쪽.

와타나베는 바다만을 의지하는 국방의식의 구태의연합과 무사안일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전의 '바다야말로 철로 만든 문에 비교될 정도의 견고한 방어물'²³⁾이라는 신화를 파기선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카미가제(神風) 전설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²⁴⁾는 전설도 파기선언한다. 와타나베가 당시의 위정가들에 대해서도 '세상 모르는 어린이'라든가 '시야가 좁아서 대를 버리고 소를 취하는 무리'라고 가차없이 비난²⁵⁾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제정세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19세기 중엽까지의 일본은 이처럼 한편에서는 적확하고 주목할 만한 정세인식이, 또 다른 편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서양인식이 다수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이 당시 일본 내에 서양제국을 둘러싼 다양한 인식의 차이와 그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바로 일본이 애초부터 통일된 국론 하에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하에서도 살펴보는 바와 같이, 국제정세나 서양인식을 둘러싼 불일치가 혼재하던 시기에 일본이 막부권력은 서양제국에게 선수를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영토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하고 있었던 점을 포함해서, 일본이 공격적인 국방론을 견지하고 있던 사실에는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는 당시 일본의 국가권력이 국내의 의견이나 인식의 차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세판단에 입각해서 주변 영토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강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북방영토를 둘러싼 경합

徳川幕府가 유지되던 약 260년간, 일본은 외국에 대한 무력진출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명치유신 이후인 1895년에 청일전쟁의 결과로 대만을 탈취하고, 1910년 조선으로부터 주권을 강탈하기 이전, 일본이 타국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점령했던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본사 상식이며, 일본의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사 상식은 재검토를 필요로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18세기 말엽에 자국의 영토가 아니었던 홋카이도(北海道)²⁶⁾ 점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요한 계기는 러시아의 출현에서 비롯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러시아는 1800년대에도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경향은 그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1700년대 말엽,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환경 가운데서 초기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던 것은 북방영토에 있어서의 러시아 출현이었다. 러시아의 남하를

23) 渡邊崋山, 앞의 “缺舌或問”, 97쪽.

24) 渡邊崋山, “再稿西洋事情書”, 佐藤昌介 편, 앞의 『渡邊崋山・高野長英』, 128쪽.

25) 渡邊崋山, 앞의 “慎機論”, 120쪽.

26) 西川如見이 작성한 『日本水土考』(1700년)내의 일본지도에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가 빠져있으며, 林子平이 쓴 『三國通覽圖說』(1785년)에는 홋카이도와 오키나와가 일본의 옆 나라로 표기되어 있다. 西川如見, “日本水土考”, 瀧本誠一 편, 『日本經濟大典』, 제4권(東京: 明治文獻, 1966), 537쪽. 林子平, “三國通覽圖說”, 山岸徳平, 佐野正巳 편, 『新編 林子平全集』, 2(東京: 第一書房, 1979), 80쪽.

심각하게 파악했던 쿠도 헤이스케(工藤平助)는 그에 대한 대응책을 의견서로 정리해서 막부에 제출한다. 그는 그 안에서 「국익을 위한 정책이라면, 지리적으로 국내에만 국한해서 수단을 강구하는 한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 일본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蝦夷地(지금의 홋카이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상태대로 내버려둔다면 캄차카반도에 있는 사람들(러시아인-저자)이 홋카이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홋카이도가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후라면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러시아의 남하를 경고한다.²⁷⁾

工藤平助의 홋카이도 증시론은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의 선구를 이루는 것으로서 커다란 영향을 남기게 된다. 工藤平助의 『赤蝦夷風說考』보다 2년 늦게 나온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三國通覽圖說』(1785년)도 홋카이도 진출을 증점적으로 거론한 유명한 저서이다. 林子平은 그 안에서 「일본과 홋카이도는 순치의 나라」라고 양 지역간의 긴밀한 정도를 강조하고, 「지금 빼앗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러시아가 빼앗을 것이다. 러시아가 이미 이를 빼앗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늦을 것이다」고 북방의 후환을 우려한다.²⁸⁾

러시아의 남하동향에 자극을 받고 저술된 일련의 홋카이도 논쟁은 막부권력의 상층부에 전달되며, 결국에는 일본의 국책 차원에서 홋카이도 조사명령이 하달된다.²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과하면서 홋카이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며, 이같은 관심이 홋카이도를 포함한 북방지역에 대한 영토적 병합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1798년에 들어서이다.

혼다 토시아키(本多利明)는 국내의 기근과 아사문제를 거론한 뒤에, 농민의 피해를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홋카이도와 북방영토 문제를 논급하기에 이른다. 먼저 그는 「유럽의 강성한 나라들은 본국은 작지만 속국이 많이 있는 나라를 대국이라 부른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³⁰⁾ 그는 이 '개발사업'을 보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타국을 침입해서라도 본국의 증식을 피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단언한다.³¹⁾ 그는 계속해서 '일본이 세계 제일의 뛰어난 나라가 되는 방책'을 논하면서 '일본의 수도를 캄차카반도로 옮기고, 사할린에 대성곽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것은 캄차카반도나 사할린이 당시 세계적 강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수도인 런던과 파리와 동일한 위도에 있다는 지리적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그가 '세계에서 양대 대부호국인 동양의 섬나라 대일본, 서양의 섬나라 영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³²⁾

本多利明은 일본이 부국이 되는 사대 방책을 논한 “經世秘策”(전편·후편 모두가 완성된 것은 1789년-1801년)이라는 저서에서도 일본 주변에 있는 섬들을 개척해서 좋은 나라로 만드는 ‘屬島의 開業’을 주요한 급무로 들고 있다. 특히 이 ‘屬島의 開業’이라는 방책은 별도의 장

27) 工藤平助, 『赤蝦夷風說考』, 井上隆明 역(東京: 教育社, 1979), 61~62쪽.

28) 林子平, 앞의 “三國通覽圖說”, 36~37쪽.

29) 辻善之助, 『田沼時代』(東京: 岩波文庫, 1980), 301~303쪽. 홋카이도 조사와 관련된 상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蝦夷地一件”, 工藤平助, 앞의 『赤蝦夷風說考』를 참조. 그러나 이 계획은 실무 책임자로서 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田沼意次の 실각으로 백지화된다.

30) 本多利明, “西域物語”, 佐藤昌介 편, 앞의 『渡邊崋山·高野長英』, 459쪽.

31) 本多利明, 앞의 “西域物語”, 461쪽.

32) 本多利明, 앞의 “西域物語”, 465쪽.

을 마련해서 소상히 다룰 정도로 여타의 방책과는 달리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을 정도이다.³³⁾ 그는 또 다른 글에서도 일본 주변의 섬에 대한 식민활동을 논하고 있으며,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그의 해외팽창론은 확신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⁴⁾

이처럼 일본은 1700년대 말엽에 러시아의 남하라는 국제정치상의 흐름을 예민하게 포착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홋카이도를 포함한 북방지역으로의 영토적 진출을 러시아 남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본의 북방지역은 결코 무주공산이 아니었으며, 엄연히 '에조인(蝦夷人)'이라는 토착민이 조상 전래의 땅을 지키면서 생활을 영위하던 주인있는 영토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그 지역에 대한 선제점거라는 영토확장을 둘러싸고 이른 시기부터 경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처럼 홋카이도는 일본의 국책 차원에서 실지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정착 구체적인 실행은 중지되어 버린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정치권력이 일본의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간단없는 남하에 대해 일본도 간단없는 북진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799년에는 에트로프섬에 '대일본 에트로프府'라는 팻말을, 1801년에도 우르프섬에 '天長地久 대일본 屬島'라는 팻말을 각각 세우는 한편, 1807년에는 홋카이도 전 지역을 막부의 직할령으로 개편-그 이전까지 홋카이도에 대한 관할권은 지방 영주에게 맡겨져 있었다-하는 등 일본의 정치권력은 북방영토에 대해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었다.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며, 1825년에는 앞서도 언급했던 아이자와 야스시가 홋카이도에 대한 적극방어를 주창하고 있었다. 그는 청나라가 아직 강성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창끝을 돌려 일본을 노리고 있다'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었다. 「홋카이도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소유해도 이익이 없고 버려도 손해가 없는 곳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쪽이 버리면 저쪽이 점거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훗날 러시아가 홋카이도 땅에 뿌리를 내려 근거지로 삼고 松前藩(일본의 제일 북쪽에 위치하던 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홋카이도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쪽으로 압박해 들어온다면 동북지방에 반드시 소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들이 오고갈 때마다 연해지방을 시끄럽게 만들게 되면 온 나라에 소란이 생길 것이다. 까닭에 이쪽이 버려도 저쪽이 점거하지 않고 단지 주인 없는 땅으로 된다면 그렇게까지 큰 해는 없으나, 만약에 적이 이 땅을 영유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큰 해가 된다. 이것이 전력을 경주해서 홋카이도 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다」.³⁵⁾

북방영토를 둘러싼 러일간의 경합은 반드시 평화리에 전개되었던 것은 아니며, 아이자와 야스시처럼 '전력을 경주해서 홋카이도 땅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는 일본의 대응은 일찍부터 개시된다. 1806년과 1807년에는 러시아인에 의한 남사할린과 에트로프의 일본인 마을 습격과 약탈, 방화, 납치 등이 자행되는 유혈충돌을 보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33) 本多利明, "經世秘策", 瀧本誠一 편, 『日本經濟大典』, 제20권(東京: 明治文獻, 1968), 105~178쪽.

34) 本多利明, "經濟放言", 瀧本誠一 편, 앞의 『日本經濟大典』, 제20권, 181~207쪽.

35) 會澤安, 앞의 "新論", 352쪽.

일본의 막부도 동북지방의 각 번에 증원부대 파견을 명령하고, 약 3000여명의 병력을 북방영토의 요소에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1811년에는 일본도 급기야 북방지역의 해역탐사를 위해 쿠나시리섬(國後島)의 남단에 기항했던 러시아함장 고로닌을 육지로 유인하여 체포하는 등, 초기 러일간의 경합은 일시적으로 실력대결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³⁶⁾

이처럼 일본은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의 남하라는 문제를 심각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대응책도 신속히 모색하고 있었다. 민간 경제가들이나 무사 계급들의 북방영토에 관한 일련의 제안, 그 제안에 대한 정치권력의 검토와 수용 등, 1700년대 말엽부터 일본은 북방영토를 무대로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시의를 놓치지 않는 정확한 대응으로 러시아와 치열한 경합을 전개하고 있었고, 북방영토에 대한 선제적 경합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었다. 이 지역이 '일본의 입술'에 해당되는 전략적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증시된 때문이다.

이러한 대응의 결과는 1875년에 러시아와 일본간에 체결된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이라는 형태로 결실된다. 이 조약은 '사할린에 양 국민이 섞여 살기 때문에 야기되어 왔던 분분한 논의의 뿌리를 끊고, 현재 양국간에 형성된 우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러시아는 사할린을 영유하고 일본은 북방 쿠릴열도를 각각 영유한다는 권리교환을 약속하는 것이었다.³⁷⁾ 1700년대 말엽부터 부상된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결국 홋카이도는 물론이고 쿠릴열도의 획득이란 최종형태로 결실을 맺는다. 당시는 아시아·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가 유럽열강에 의해 자국 영토를 송두리째 장악당하던 시대였다. 이런 국제정치적인 상황하에서도 일본은 자국 영토도 아니었던 쿠릴열도는 물론이고 일본과는 '이빨과 입술의 관계'에 있었던 홋카이도를 일부분도 손상당하지 않고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러일간의 갈등은 다름아닌 바로 이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싸고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Ⅲ. 공격적 해양방어론의 형성

일본의 북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1700년대 말엽부터 시작되었듯이, 일본의 남방 문제인 해양방어에 관한 논의도 비슷한 시기에 개시된다. 전자가 러시아의 출현이라는 계기에 의한 것이라면, 해양방어 논의가 가속화되는 것은 영국의 대두라는 계기에 의한다. 또한, 전자가 홋카이도 문제였다면, 후자는 오키나와 문제였다.

1700년대 말엽에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해 선구적으로 다룬 일본인은 하야시(林子平)이다. 『海國兵談』(1786년)을 저술한 하야시는 그 안에서 「海國의 군비는 바다에 있다. 바다의 병법은 水戰에 있다. 수전의 요체는 대포에 있다. 이는 海國에 있어 자연스런 군사제도」³⁸⁾라며, 일본 국방의 핵심적 요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가 이 저서의 서두에 함선의 제작술을 포함해서 해상전의 요체에 대해 우선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의 지

36) 그로우닌, 『ロシア士官の見た徳川日本』, 徳力眞太郎 역(東京: 講談社, 1985) 참조.

37) 外務省 편찬,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東京: 原書房, 1965), 57~59쪽.

38) 林子平, 『海國兵談』, 村岡典嗣 校訂(東京: 岩波文庫, 1939), 17쪽.

리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군략상의 필요에 기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林子平이 지상전을 논할 수밖에 없는 산이 많은 나라 중국의 병서를 원전 그대로 수용한 일본의 병서를 비판³⁹⁾한 것은 이유있는 문제제기이며 주목할 만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그의 현실인식과 대응은 수미일관하고 있었다.

1820년대의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해양방어와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논객은 앞서도 언급했던 아이자와 야스시이다.⁴⁰⁾ 그는 과거에 일본을 습격했던 여진족이나 몽고에게 막대한 장애가 되었던 천연요새로서의 험한 바다가 서양인들에게는 더 이상 천연요새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예전에는 소위 천연요새였던 바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른바 도적의 통로'가 되었다고 지적한다.⁴¹⁾ 서양의 무기와 그들의 발달된 항해술이 일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이자와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도 그들의 발달된 항해술과 무기 보유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일본의 해상전투와 관련된 역사적 검토를 통해서 '몽고내습시와 임진란 때에, 몽고와 조선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지상전투에서가 아니고 대부분 해상전투'⁴²⁾에서였다는 인식에 입각, '항해술을 갈고 닦는 것, 대함을 제조하는 것은 해양국가 일본이 우선 힘써야 할 과제'⁴³⁾라고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언급과 지적은 일본의 남방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정치상의 변동에 의해 현실감을 갖기 시작한다. 1840년 영국과 중국간에 발생한 아편전쟁이 중국의 굴복이라는 형태로 귀결됨으로써 일본인들에게는 충격적인 파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서구 열강에 대한 일종의 아시아 방파제였던 중국이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일본의 지식인에 의해 신속히 간파됨으로써, 일본도 더 이상 안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비친 것이다. 중국을 굴복시킨 서구열강이 일본의 남쪽인 오키나와 방면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琉球왕이 통치하던 오키나와를 주목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한 것이다.⁴⁴⁾ 오키나와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던 탓에, 1816년에는 서양 함선이 오키나와에 기항하는 것이 가능했다.⁴⁵⁾ 그러나 아편전쟁 전인 1816년에 서양 함선이 오키나와에 입항했을 때만 해도 이에 따른 급박한 위기의식은 고조되지 않았다. 역시 문제는 중국의 패배와 영국의 급부상이라는 정세변동이었던 것이다. 1840년대 일본의 선진지식을 대표하던 타카노 쯔에이(高野長英)는 이같은 정세변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39) 林子平, 앞의 『海國兵談』, 7쪽.

40) 1820년대에는 영국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위기의식과 함께 해양방어의 중요성을 논한 "海防策"이 佐藤信淵에 의해 발표되기도 한다. 本庄榮治郎, 『先覺者の南方經營』(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42), 117~119쪽.

41) 會澤安, 앞의 "新論", 331~332쪽.

42) 會澤安, 앞의 "新論", 360쪽.

43) 會澤安, 앞의 "新論", 361쪽.

44) 오키나와는 1609년에 큐슈의 사쓰마(薩摩)번에 의해 무력침략을 당함으로써 사쓰마번과 막부의 통제를 받기에 이르는 했지만, 왕국 자체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의견상으로는 琉球왕국이라는 독립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外間守善, 『沖繩の歴史と文化』(東京: 中公新書, 1986), 76~77쪽.

45) 1816년에는 베이징 홀 함장이 이끄는 영국 함선이 오키나와에 입항, 1850년대 초에도 푸차친 함장이 인솔하는 러시아 함대가 오키나와에 입항하는 등, 서양 함선의 오키나와 입항은 일본 본토에 입항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로웠다. пейジル·홀, 『朝鮮·琉球航海記』, 春名徹 역(東京: 岩波文庫, 1986) 및 ゴンチャロフ, 『日本渡航記』, 井上滿 역(東京: 岩波文庫, 1941)을 참조.

「최근에 영국이 아편금제를 범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침략했다. 영국이 일시적인 작은 이익을 획득하고 배상금을 받아내며 다섯 개의 시장을 양도받게 되면서 다른 서양인들도 그 기운을 틈타서 무역지대를 넓히고자 프랑스,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은 서양제국도 우리 일본에 밀려들고 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첩자를 몰래 들여보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전함 수척을 먼 곳에서부터 파견하여 강압적으로 통교와 무역을 구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일본을 병탄하고자 온갖 책략을 다 부리고 있다」.⁴⁶⁾

그러나 서구열강에 대한 대응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국론은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자신들의 충성심이나 용감성을 과신하거나, 혹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지나지 않는 서양 병력에 대한 무시, 나아가서는 '서양인은 욕심이 많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하지만, 그들 도예이나 수치라는 것은 알고 있을 터이다. 합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낙관적 전망이 유력했다.⁴⁷⁾

그러나 高野長英은 이러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오키나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가 전개하는 논지는 앞에서 본 홋카이도 선계점거론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 하다. 그는 먼저 「오키나와는 실제로는 일본을 따르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중국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일본군대가 지금 당장 오키나와로 출진해서 서양인을 압도하고 우리의 무력위세를 빛나게 할 수는 없다. 한편 중국은 병력이 쇠약해져서 자국을 지키는 것도 힘들다. 하물며 자그마한 속국인 오키나와를 구할 여유가 있을 턱이 없다」⁴⁸⁾며, 서양제국이 이러한 일본의 약점과 중국의 한계를 이용하면서 오키나와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온갖 계략을 획책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이에 이르러 그는 다음과 같은 오키나와 인식을 밝힌다.

「만약 서양 군대가 오키나와를 점령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커다란 재앙이 여기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그 위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맹독을 지닌 덩굴풀이 만연되어 잔악한 역병이 퍼져가는 것과 같다. 그 뿌리가 정착되면 잎과 줄기에도 맹독이 왕성하게 만연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주변에도 재해가 미치게 되며, 역병의 독이 일단 번지게 되면 집집마다 전염되어 그 해악은 옆나라에도 미치게 된다. ... 우리는 오키나와를 일본의 목젢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심히 염려하는 것이다」.⁴⁹⁾ 홋카이도와 북방지역을 둘러싼 러일간의 경합에서 일본이 후퇴하지 않았던 것은 이곳이 일본과는 '이빨과 입술의 관계'에 있었던 때문이었듯이, 오키나와 증시론은 이곳이 '일본의 목젢'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해양방어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병비 개혁이나 시설물의 재구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사쿠마 조잔(佐久間象山)은 해양방어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전의 해양방어론을 비판적으로 논파한다.⁵⁰⁾ 사쿠마 조잔도 앞의 高野長

46) 高野長英, “知彼一助”, 佐藤昌介 편, 앞의 『渡邊崋山・高野長英』, 352~353쪽.

47) 高野長英, 앞의 “知彼一助”, 353쪽.

48) 高野長英, 앞의 “知彼一助”, 353~354쪽.

49) 高野長英, 앞의 “知彼一助”, 354쪽.

50) 사쿠마 조잔은 자서전적인 기록을 통해서 「나는 오랫동안 해양방어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선배들보다도 뛰어난 구상을 얻는데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꾸로 죄인이 되고 말았다. 내 생각이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위정자들이 이를 깨닫는 때가 오면은 나의 의견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고 술회할 만큼 자신의 해양방어론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佐久間象山, “省儻錄”, 松浦玲 편, 앞의 『佐久間

英만큼이나 남방지역의 급격한 정세변동을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아편전쟁의 결과 이 나기 전인 1841년 편지에서 「중국이 유럽의 오랑캐들에게 유린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 만일 중국이 굴복한다면 일본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고 예견하면서, 「영국의 배는 언젠가는 일본에 해를 가할 것임에 분명하다. 설령 영국이 일본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 해도 …… 일본인인 이상은 국력을 강화하고 해안의 방어체제를 견고하게 하는데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한다.⁵¹⁾ 그의 해양방어론은 아편전쟁이라는 일본 주변정세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해양방어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는 먼저 중국의 해양방어론이 「예로부터 해양방어에 관한 이론은 있지만 해전에 관한 이론이 없고, 성벽을 튼튼하게 축조하고 육지를 정비하며 해안으로 다가오는 적을 물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전통적인 해양방어법으로 삼아왔다」고 전제하고, 「나의 설은 군함을 만들고 대포를 실어 해상에서 적을 맞아 공격, 해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데 있다」⁵²⁾며 해양방어론에 관한 중국과의 상이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해양방어의 요점은 대포와 군함이며, 특히 대포는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한다.⁵³⁾ 또한 사쿠마는 해양방어에 대해 논한 문서 안에서도 이 점을 언급, '서양류의 군함을 만들고, 해양전술을 충분히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⁵⁴⁾

'해상에서 적을 맞아 공격, 해전에서 승패를 결정'한다는 주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184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방어에 관한 논의는 이전의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전략에서 공격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으로의 질적인 전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정치권력은 시의를 놓치지 않고 이러한 논의를 수용해서 해양방어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게다가 아편전쟁 후인 1844년, 1846년에는 서양함선이 오키나와에 입항을 하는 형세였다. 서양함선의 오키나와 입항 본의야 무엇이든간에, 일본인들에게는 자국의 남방지역이 현실적으로 압박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을 것이다. 1850년대 기록에 따르면, 쇄국체제가 실행되던 이 시기에 일본 본토에서는 상상도 못할 교회가 오키나와에 들어서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도 파견되어 있었다. 일본의 지배계급은 이러한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600여명의 일본인들이 오키나와식 두발과 복장을 한 채 오키나와인과 외국인을 감시하고 있었다.⁵⁵⁾ 해양방어의 중요성은 현실적인 문제였고, 중요한 것은 사쿠마 조건의 표현을 빌면,

象山・横井小楠, 96쪽.

51) 佐久間象山, “加藤氷谷에게 보낸 편지”, 松浦玲 편, 『佐久間象山・横井小楠』(東京: 中央公論社, 1970), 113쪽.

52) 佐久間象山, 앞의 “省儻錄”, 101-102쪽. 최근 일본내의 한 국방논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후 일관된 자위대의 훗카이드 방위구상은 '적의 침공상륙을 맞아 전략적으로 후퇴하면서 반격을 가하며 미국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작전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는 명백히 본토결전 체제이다. … 신종 방위병기를 주축으로 한 양상격파(洋上撃破)를 지향하는 방위체제로 한다면, 상대에게 해상에서의 반복 공격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최초의 단계에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石原慎太郎, “日米安保條約への'NO'”, 石原慎太郎, 渡部昇一, 小川和久 공저, 『それでも'NO'と言える日本』(東京: 光文社, 1990), 81쪽. '본토결전 전략에서 양상격파 전략(洋上撃破戰略)'으로라는 방위체제 전환론은 과거 일본의 해양방어론을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흥미를 끄는 부분이다. 이는 일본의 해양방어가 예나 지금이나 무계를 지니는 중대한 화두임을 방증하는 상징적인 논의로서 관심을 끈다.

53) 佐久間象山, 앞의 “省儻錄”, 102쪽.

54) 佐久間象山, “上書 海防策(1842년)”, 松浦玲 편, 앞의 『佐久間象山・横井小楠』, 123쪽.

‘서양류의 군함과 해양전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포’였다. 이러한 문제는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인 초빙을 통해 일거에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일본의 정치권력은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는 페리제독이 이끄는 미국함대의 내항(1853년 6월) 이후, 지속적인 쇄국정책의 불가함을 판단하고 서구세력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서구식 해군의 창설을 결심한다. 1853년 9월에는 네덜란드로부터 군함·총포·병서 등을 주문하며, 2년여 뒤인 1855년 7월에는 근대과학과 해군지식에 관한 인재양성을 위해 네덜란드인을 교관으로 하는 나가사키 해군전습소(傳習所) 개설 및 교습생을 파견하는 등, 해양방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⁵⁶⁾ 나가사키 해군전습소에서 이루어진 교습생 교육은 일본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집단훈련을 받은 최초의 예로 기록된다. 나아가 일본의 정치권력은 나가사키에 교습생을 파견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한 1857년에 에도(江戸-지금의 東京)에도 군함교수소(軍艦教授所)를 만들고 대규모의 훈련을 개시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다. 에도 군함교수소에서 지도를 담당하게 될 교관은 네덜란드인이 아니고 나가사키에서 교육을 받은 일본인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 일본의 국방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이른 시기에 선진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물어버림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성공한다.

군함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계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영국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함대는 대부분 목조선이었고, 철제 전함을 처음으로 거느리게 되는 것은 1860년에 이르러서였다. 이는 당시의 해군력과 관련된 기술적 장벽이 대단히 높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후발국가가 선발국가를 따라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방해받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이르러 이미 전함으로서는 가치하락을 하고 있는 목조 전함제조에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함도 없이, 곧바로 신종 철제 함대제조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다.⁵⁷⁾ 군사면에 있어서 일본은 후발국가라는 장점과 그에 따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1862년 이전에 태평양을 단독으로 횡단한 기록이 다름아닌 네덜란드산 수입군함 간령마루(咸臨丸)에 승선한 일본인에 의해 수립됐다는 사실은 일본의 해양방어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기울여 왔던 노력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⁸⁾

‘가장 중요한 대포’에 대해서도 일본은 군함문제만큼이나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1830년대 일본인의 대포에 관한 지식은 보잘 것 없었고, 따라서 일본의 대포는 아주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당시 일본의 대포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힘은 있었지만, 함선이나 요새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페리제독이 내항한 지 한달 뒤인 1853년 7월부터 병기제조와 관련해서 일본 내부에는 신속한 변화가 일어난다.⁵⁹⁾ 먼저 각 藩에

55) ゴンチャロフ, 앞의 『日本渡航記』, 368~369쪽.

56) 江藤淳, 勝部眞長 편, 『勝海舟全集』, 12(東京: 勁草書房, 1971), 7~177쪽.

57) 당시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함선은 방위에 적합한 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용을 과시할 장식물 성격이 강한 선박이 대부분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일본인은 해군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フィッセル, 『日本風俗備考』2, 庄司三男·沼田次郎 역주(東京: 平凡社, 1978), 24~26쪽.

58) 服部之總, 『黒船前夜・志士と經濟』(東京: 岩波文庫, 1981), 65~68쪽.

59) 藤原彰, 『軍事史』(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61), 6~8쪽.

서는 자율적으로 대포 제작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德川막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포제조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부도 동년 9월에는 대포제조 금지령을 해제한다. 대포제조에 관한 한, 일본은 국운을 건 듯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대포제조에 전력을 기울인다. 공격적인 해양방어를 주장한 사쿠마 조잔도 이미 1842년에 제출한 해양방어책에서 사찰의 범종 등을 회수해서 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듯이,⁶⁰⁾ 德川막부도 1853년 12월에는 범종으로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천황에게 재가를 구할 정도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식 병기의 개발과 보유를 향한 당시 일본 지배계급의 열의와 욕구를 대변해 준다.

이처럼 시의를 놓치지 않고 해양방어에 기울인 일본 정치권력의 관심과 노력은 북방영토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선제점거 경합에서 일본의 후퇴도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써, 정확한 정세인식과 그에 상응하는 대응전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시해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적을 물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수세적인 해양방어론에서 '해상에서 적을 맞아 공격, 해전에서 승패를 결정'한다는 공격적 해양방어론으로의 선회는 일본의 국책으로 정착을 하게 되며, 이로부터 반세기가 경과하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는 당시 세계 최강이라는 발틱함대를 해상격파하는 전과로 결실된다. 또한 1920년대에 이르면 단 한 척의 전함도 보유하지 못했던 일본은 세계5대 해양강국의 일원으로 부상, 아시아에서의 제해권을 둘러싸고 英美 양국과 각축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목꺾'으로 전략적 가치가 중시됐던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의 북방영토를 무대로 러일간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무혈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운명은 쿠릴열도·홋카이도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러일간에 체결된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1875년)으로부터 4년 뒤인 1879년에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토로 완전히 흡수병합되고 만다.⁶¹⁾ '일본의 목꺾'에 대한 선제점거가 완결된 것이다.

맺음말

德川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맞이한 명치시대 초기에도 국제정세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의와 모색이 강구된다. 명치시대 초기에 일본의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가 어느 정도 현실성있는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⁶²⁾ 그러나 확실한 것은 초기 명치정부가 서양제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일례로 명치유신 초기에 반포됐던 천황의 「유신칙어」(1868년 3월 14일)⁶³⁾에서도 단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을 보전'하고 '열강과 맞설 수 있는' 일본을 건설하는 것은 그 당시 일본의 가장 중대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서양제국을 바라보는 시각

60) 佐久間象山, 앞의 "上書 海防策", 130쪽.

61) 外間守善, 앞의 『沖繩の歴史と文化』, 82~83쪽.

62) 이 문제를 둘러싼 견해 대립에 대해서는 田中彰, "維新政權論", 『講座日本史 明治維新』(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70), 163쪽.

63) 社會教育協會 편, 『勳皇文庫』, 御聖德篇(東京: 社會教育協會, 1940), 131~132쪽.

과 위기의식에 관한 한, 명치시대의 지배계급은 德川시대의 정신적 유산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그리고 일본의 명치정부는 '일본의 입술'인 홋카이도와 '일본의 목젓'인 오키나와를 제압한 뒤에 또 다른 '일본의 입술과 목젓'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그 대상으로 한반도가 거론된다. 1890년에 야마카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은 한반도가 타국에 의해 점령당하게 되면 일본의 머리 위에 칼을 늘어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형세를 면치 못한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곧 한반도가 '일본의 입술'이거나 '일본의 목젓'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그는 '조선防護론'을 주장하게 되며,⁶⁴⁾ 이의 구체적인 완결형태가 한일합방이었다.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명치시대의 지배계급은 德川시대의 유산 또한 온전하게 계승한 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힘의 정치를 구사하던 1800년대 당시, 시대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하던 일본 지배계급의 서양인식은 일본의 운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의 지배계급은 서양제국의 일본 접근을 일본에 대한 영토적 야욕에 있는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재빨리 잉태하게 되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국가적인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는 토대마련의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정치권력이 북방영토 선제점거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경합에 있어서나 해양방어를 둘러싼 대처에 있어서나, 서양제국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국방론으로 맞대응하는 확고하고 일관된 국책을 견지하고 있었음은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운명에 있어서 정치권력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잘 대변해 준다.⁶⁵⁾

특히, '일본의 입술'로 파악하는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일본의 목젓'으로 파악하는 오키나와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인식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정책적인 대응전략의 대상으로 발전한 점은 현대일본의 국제정치상의 대응 패턴을 이해하는데도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현대일본이 자국의 '입술'이나 '목젓'으로 인식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대상지역으로 파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일본정치의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인용문헌(인용순서)

新井白石, 『西洋紀聞』, 宮崎道生 校注(東京: 東洋文庫, 1968).

西川如見, “華夷通商考”, 瀧本誠一 편, 『日本經濟大典』, 제4권(東京: 明治文獻, 1966).

桂川甫周, 龜井高孝 교정, 『北槎聞略-大黒屋光太夫ロシア漂流記-』(東京: 岩波文庫, 1990).

室賀信夫, 矢守一彦 편역, 『蕃談-漂流の記録1-』(東京: 東洋文庫, 1965).

申維翰, 『海游錄』, 姜在彦 역주(東京: 東洋文庫, 1974).

ドナルド・キン, 『日本人の西洋發見』, 芳賀徹 역(東京: 中公文庫, 1982).

64) 山縣有朋, “外交政略論”, 大山梓 편, 『山縣有朋意見書』(東京: 原書房, 1966), 196~200쪽.

65)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이 근대화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京極純一, 『日本人と政治』(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6), 62~73쪽을 참조.

渡邊崋山, “外國事情書”, 佐藤昌介 편, 『渡邊崋山・高野長英』(東京: 中央公論社, 1984).

R·사뮤엘스, 『일본이 힘있는 나라가 된 이유-군사기술 대국의 내막-』, 정근모·이경서 공역 (서울: 문화일보, 1995).

會澤安, “新論”, 橋川文三 편, 『藤田東湖』(東京: 中央公論社, 1974).

橋本左內, 『啓發錄』, 伴五十嗣 역주(東京: 講談社, 1982).

渡邊崋山, “賦舌或問”, 佐藤昌介 편, 『渡邊崋山・高野長英』(東京: 中央公論社, 1984).

渡邊崋山, “愼機論”, 佐藤昌介 편, 『渡邊崋山・高野長英』(東京: 中央公論社, 1984).

渡邊崋山, “再稿西洋事情書”, 『渡邊崋山・高野長英』(東京: 中央公論社, 1984).

西川如見, “日本水土考”, 瀧本誠一 편, 『日本經濟大典』, 제4권(東京: 明治文獻, 1966).

林子平, “三國通覽圖說”, 山岸德平, 佐野正巳 편, 『新編 林子平全集』, 2(東京: 第一書房, 1979).

工藤平助, 『赤蝦夷風說考』, 井上隆明 역(東京: 教育社, 1979).

辻善之助, 『田沼時代』(東京: 岩波文庫, 1980).

本多利明, “西域物語”, 佐藤昌介 편, 『渡邊崋山・高野長英』(東京: 中央公論社, 1984).

本多利明, “經世秘策”, 瀧本誠一 편, 『日本經濟大典』, 제20권(東京: 明治文獻, 1968).

本多利明, “經濟放言”, 瀧本誠一 편, 『日本經濟大典』, 제20권(東京: 明治文獻, 1968).

ゴロウニン, 『ロシア士官の見た徳川日本』, 徳力眞太郎 역(東京: 講談社, 1985).

外務省 편찬,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東京: 原書房, 1965).

林子平, 『海國兵談』, 村岡典嗣 校訂(東京: 岩波文庫, 1939).

本庄榮治郎, 『先覺者の南方經營』(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42).

外間守善, 『沖繩の歴史と文化』(東京: 中公新書, 1986).

ベイジル・ホール, 『朝鮮・琉球航海記』, 春名徹 역(東京: 岩波文庫, 1986).

ゴンチャロフ, 『日本渡航記』, 井上滿 역(東京: 岩波文庫, 1941).

高野長英, “知彼一助”, 佐藤昌介 편, 『渡邊崋山・高野長英』(東京: 中央公論社, 1984).

佐久間象山, “省魯錄”, 松浦玲 편, 『佐久間象山・横井小楠』(東京: 中央公論社, 1970).

石原愼太郎, 渡部昇一, 小川和久 공저, 『それでも'NO'と言える日本』(東京: 光文社, 1990).

佐久間象山, “上書 海防策”, 松浦玲 편, 『佐久間象山・横井小楠』(東京: 中央公論社, 1970).

江藤淳, 勝部眞長 편, 『勝海舟全集』, 12(東京: 勁草書房, 1971).

フィッセル, 『日本風俗備考』2, 庄司三男・沼田次郎 역주(東京: 平凡社, 1978).

服部之總, 『黒船前夜・志士と經濟』(東京: 岩波文庫, 1981).

藤原彰, 『軍事史』(東京: 東洋經濟新報社, 1961).

田中彰, “維新政權論”, 『講座日本史 明治維新』(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70).

社會教育協會 편, 『勤皇文庫』, 御聖德篇(東京: 社會教育協會, 1940).

山縣有朋, “外交政略論”, 大山梓 편, 『山縣有朋意見書』(東京: 原書房, 1966).

京極純一, 『日本人と政治』(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6).